

예배 순서

1부 9시30분, 2부 11시

설교: 이태경 담임목사, 2부 사회: 홍성중

예배로의 초대 Prelude* / 목도

<찬양과 기도>

찬 송 Hymn* /

70장 “피난처 있으니”

인 사 Welcome*

경배와 찬양 Song of Praise

신앙고백 The Words of Confession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기 도 Prayer / 1부: 박바울, 2부: 오상식

<말 씀>

성경봉독 Reading of Scripture /

요 4: 43-54

찬 양 Choir / 주찬양성가대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말씀 선포 Sermon / 이태경 목사

“두 번째 표적”

기도 Pastoral Prayer / 이태경 목사

<예물봉헌>

봉헌송 Hymn*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예물봉헌 Offering, Prayer of Thanksgiving* / 신홍섭

<축 도>

마침 찬양 Closing Hymn* /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축 도 Benediction*

교회 소식 Greetings and Announcements

식사기도 / 이영희

* 일어서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린 생명 보살핀 유아부장 스토리

“하얀 종이 같은 아이들 마음에 주님 메시지 잘 전달토록 고민”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6년 동안 영적인 갈급함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쳐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놓고 싶었던 내가 유아부를 시작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이들 엄마여서 가능했던 동화구연 수준의 말씀 전하기부터, 몸치이기에 가능(?)했던 뺏뺏한 울동, 그리고 크래프트 및 자료 정리와 전반적인 관리 등 멀티 플레이어야만 했지만 초기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유아부 시작 주님 주신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이런저런 고민 끝에 ‘오늘은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란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해보고 능력 있는 분을 모셔다가 유치원 음악 등 여러 활동도 시도해보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유아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혼자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보다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을 각 분야의 주체로 세워 선생님 재능에 따라 찬양, 교육, 크래프트 담당으로 한 명, 한 명 세워가자 유아부도 차츰 자리가 잡혀갔다. 이제까지 보냈던 유아부 통신문들을 읽어보니 쉽지 않은 봉사 자리에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기록을 보며 그동안 넘치게 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다시 감동으로 다가온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4년 8개월 동안, 유아부 담당으로 의욕만 앞섰던 초창기 이후, 차차 자리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이 감사했다. 나의 길지 않은 신앙생활과 부족한 지식, 미약한 믿음을 가진 부족한 내가 아이들에게 주님에 대해 잘못 전달할까봐 고민을 해 왔었음을 고백한다. 하얀 종이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제대로 된 주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어 아이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전달해야 했는데 여러모로 부족했던 것 같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왜곡하는 것이면 어찌나 하는 생각과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유아부를 내려놓아야 하나 하는 고민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성실히 일한 선생님들께 감사

적당한 시기에 후임자에게 유아부를 내려놓고 싶다는 나의 바람이 그동안 함께 했던 박바울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항상 성실히 유아부를 맡아

오던 박바울 선생님이 흔쾌히 맡겠다는 것을 보며, 나의 마무리 조차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유아부를 섬기며 두 손 꼭 잡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4).”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그 어떤 의심도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나도 닮고 싶었다.

부족한 내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유아부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과 교회에 참 많이 감사한다. 언젠가 어느 부분에서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때는 육신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신앙적인 고민들을 안고 가면서도 지지치 않는 열정으로 할 수 있길 소망한다.

글/ 이태경. 남편 박진규 집사(Research Faculty, Industrial & Manufacturing Engineering)와 슬하에 상우(13), 헤리(6). 2008년에 도미(渡美), 2005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랑가정교회에 속해 있으며, 지난 4년 8개월 동안 유아부장으로 봉사했다. 좌우명은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 후회하지 말자!”

지난주 예물봉헌 OFFERING >>>

십 일 조: 이태경/이하나, 이승모/손명례, 김춘식, 권찬원, 오상식/오정숙, 김정수/박영인, 이재훈/정인희

주일헌금: 김덕윤/김선경, 이승모/손명례, 하주용/정경선, 김보의/김민철, 김경민/정혜원, 이성은, 무명

감사헌금: 홍성중/장금복, 김대성, 김보의/김민철, 김주영/이상은, 권진중/김정화, 박진규/이태경, 김영호/이화옥, 무명

선교헌금: 이승모/손명례, 김대성, 은혜(DAVID 입), 믿음(인도), 이삭(형가리) 아브라함(말레이시아)

† 헌금총액: \$2,667.00 / 십일조 \$1,520, 감사헌금 \$520, 주일헌금 \$237, 선교헌금 \$365, 주일학교/중고등부 \$25

재정통계 FINANCIAL SNAP SHOT (최근 5주) >>>

2/19 - \$2,667 2/12 - \$4,153.00 2/5 - \$4,298.25 1/29 - \$3,016.00 1/22 - \$3,555.05

†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따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마련한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